

學期末시험에 부쳐

학기를 마무리하며... (Article text continues)

家庭 金 葉 培

학부모님들께... (Article text continues)

셰익스피어의 인간 이해

셰익스피어는... (Article text continues)



金 漢 (Author name and title)

「햄릿」서 초월적 미래로서의 神계시

「햄릿」은... (Article text continues)

「校史資料」蒐集

本校는 내년 5월 80년 개교 80周年을 맞게됩니다. 이 뜻깊은 80周年을 앞두고 「校史資料室」에서는 본교의 發展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校史 資料에 관한 資料를 널리 蒐集하고 있습니다. 이 事業은 東國 80年史는 물론 우리 나라 近代教育의 變遷과 發展에 再照明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나아가 東國來日의 창조적 地주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東國가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기대됩니다.

1. 蒐集內容
 - 제1차 1900년 10월 13일 開校 80周年을 맞이합니다.
 - 2. 接受期間
 - 수시 접수
 - 3. 接受場所
 - 우편번호 100, 서울 中區 筆洞 3街 20 東國大學校 「校史資料室」
 - 4. 其他事項
 - (1) 接受된 資料는 寄贈者 표시와 함께 「校史資料室」에 永久 보관하게 됩니다.
 - (2) 자세한 것 「校史資料室」(NOV-8-3) 交 4200-4000)로 問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 6월 4일

東國大學校 校史資料室

예비군교육 소집통보 (1985년 하반기·사격훈련)

예비군 소집처는 6주후반기에 실시되는 13종의 예비군 교육과 85후반기에 실시되는 사격훈련을 위한 통보입니다.

연월	일	시간	장소	대상
85년 6월	24일	09:00 ~ 12:00	충남 천안시	1. 미필군복합교육 (소집된 예비군)
	25일	12:00 ~ 03:00	충남 천안시	2. 85년 하반기 예비군 교육
85년 6월	25일	09:00 ~ 12:00	충남 천안시	3. 85년 하반기 예비군 교육
	26일	12:00 ~ 03:00	충남 천안시	4. 85년 하반기 예비군 교육

※ 85년 하반기 예비군 교육 (사격훈련 제외) 6월 30일까지

충국대학교 예비군연대장

獨文化學院

개강 6월 3일

- 초·중·고급 문법
- 초·중·고급 해석
- Der Spiegel
- 특일인 회화 I, II, III

● 전철을 타면 편리한 용지보 3가 전철역과 용지보 2가 네거리사이

T. 267-3569
266-0354

학생증 분실자공고

1. 1985학년도 5월 20일 ~ 6월 1일까지 학생증 분실 신고자의 명단을 공고하고 해당자는 6월 5일부터 학생회에서 학생증을 재교부 받기 바랍니다.

2. 입학기 회계 학생증 발급은 85년 6월 15일 까지 신고한 자의 한하여 학생증을 재발급 하지 않습니다.

3. 학생증 분실자 명단

학번	성명	학번	성명
8512020	김민준	8553007	이민준
8512021	김민준	8553008	이민준
8512022	김민준	8553009	이민준
8512023	김민준	8553010	이민준
8512024	김민준	8553011	이민준
8512025	김민준	8553012	이민준
8512026	김민준	8553013	이민준
8512027	김민준	8553014	이민준
8512028	김민준	8553015	이민준
8512029	김민준	8553016	이민준
8512030	김민준	8553017	이민준
8512031	김민준	8553018	이민준
8512032	김민준	8553019	이민준
8512033	김민준	8553020	이민준
8512034	김민준	8553021	이민준
8512035	김민준	8553022	이민준
8512036	김민준	8553023	이민준
8512037	김민준	8553024	이민준
8512038	김민준	8553025	이민준
8512039	김민준	8553026	이민준
8512040	김민준	8553027	이민준
8512041	김민준	8553028	이민준
8512042	김민준	8553029	이민준
8512043	김민준	8553030	이민준
8512044	김민준	8553031	이민준
8512045	김민준	8553032	이민준
8512046	김민준	8553033	이민준
8512047	김민준	8553034	이민준
8512048	김민준	8553035	이민준
8512049	김민준	8553036	이민준
8512050	김민준	8553037	이민준
8512051	김민준	8553038	이민준
8512052	김민준	8553039	이민준
8512053	김민준	8553040	이민준
8512054	김민준	8553041	이민준
8512055	김민준	8553042	이민준
8512056	김민준	8553043	이민준
8512057	김민준	8553044	이민준
8512058	김민준	8553045	이민준
8512059	김민준	8553046	이민준
8512060	김민준	8553047	이민준
8512061	김민준	8553048	이민준
8512062	김민준	8553049	이민준
8512063	김민준	8553050	이민준
8512064	김민준	8553051	이민준
8512065	김민준	8553052	이민준
8512066	김민준	8553053	이민준
8512067	김민준	8553054	이민준
8512068	김민준	8553055	이민준
8512069	김민준	8553056	이민준
8512070	김민준	8553057	이민준
8512071	김민준	8553058	이민준
8512072	김민준	8553059	이민준
8512073	김민준	8553060	이민준
8512074	김민준	8553061	이민준
8512075	김민준	8553062	이민준
8512076	김민준	8553063	이민준
8512077	김민준	8553064	이민준
8512078	김민준	8553065	이민준
8512079	김민준	8553066	이민준
8512080	김민준	8553067	이민준
8512081	김민준	8553068	이민준
8512082	김민준	8553069	이민준
8512083	김민준	8553070	이민준
8512084	김민준	8553071	이민준
8512085	김민준	8553072	이민준
8512086	김민준	8553073	이민준
8512087	김민준	8553074	이민준
8512088	김민준	8553075	이민준
8512089	김민준	8553076	이민준
8512090	김민준	8553077	이민준
8512091	김민준	8553078	이민준
8512092	김민준	8553079	이민준
8512093	김민준	8553080	이민준
8512094	김민준	8553081	이민준
8512095	김민준	8553082	이민준
8512096	김민준	8553083	이민준
8512097	김민준	8553084	이민준
8512098	김민준	8553085	이민준
8512099	김민준	8553086	이민준
8512100	김민준	8553087	이민준

1985년 6월 4일

학생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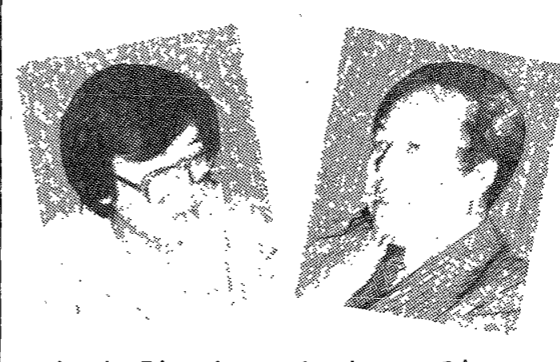


“후생복지의 전면개편 시도될듯”

정부가 후생복지의 전면개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기 부총리 겸 기획경제기획처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때 “후생복지의 전면개편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기 부총리는 “후생복지의 전면개편은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생복지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기 부총리는 “후생복지의 전면개편은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생복지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기 (기획경제기획처장) (부총리 겸)

◇시간=5월31일 오후 1시
◇장소=충무처장실
◇사회=최창상 (本社 취재부장)

南-사명감 갖고 本質的 개선에 주력할터 장기적안목의 厚生전담기구 설치절실 후-복지시설의 점진적 직영화 실시돼야

정부는 남-사명감을 갖고 본질적인 개선에 주력할 터, 장기적 안목의 후생전담기구 설치절실, 후-복지시설의 점진적 직영화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남-사명감을 갖고 본질적인 개선에 주력할 터, 장기적 안목의 후생전담기구 설치절실, 후-복지시설의 점진적 직영화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근로자 실태보고

여성근로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조건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근로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조건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폭력의 男性권위의 상징

폭력은 男性권위의 상징으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다.

폭력은 男性권위의 상징으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다.

鹿野苑 教育의 본리

교육의 본리는 인간성 함양과 사회 발전에 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의 본리는 인간성 함양과 사회 발전에 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時事英語研究 3,000원

英語世界 2,700원

時事 1,000원

英作文全集 전9권

時事英語研究 3,000원

英語世界 2,700원

時事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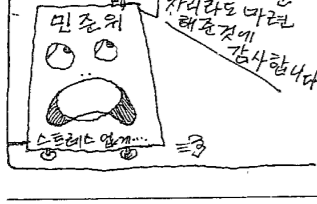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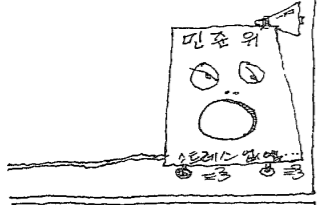
英作文全集 전9권

時事 1,000원

英作文全集 전9권

時事 1,000원

英作文全集 전9권



核과 韓半島 前 언론인 6人著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핵무기의 실체와 세계의 반핵운동을 다룬 본격적인 핵문제서

입문서 「核과 韓半島」가 출간되었다. 최초의 핵문제서로 제1장 「핵무기와 한반도」 제2장 「핵지옥의 실체」 제3장 「반핵운동」 제4장 「미·소 핵무기 경쟁의 전개과정」 제5장 「군소국가의 핵확산원활과 핵정체」 제6장 「핵저지」로 되어있는데 핵정체의 위협성을 잘 나타내 준다.

<아침판 280면 · 3,500원>

日本人과 한국인... 金容容 著

한국과 일본의 민족성을 일관된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日本人과 韓國人의 역사구조」가 출간되었다.

이책의 특성은 우리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반대의사를 하는 일본인과 일본문화의 특성을 우리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명징하게 드러내 주고 있으며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두 민족의 다양한 특성이 신화적 단순성 속에 응축되어 있다.

<한글판 250면 · 2,800원>

새歷史의 鼓動 金容容 著

김용容 전 공화당총재가 79년 10·26 직후 집권한 것으로서 '핵' 김용容이 80년대를 설계한 한국의 정치비전을 제시한 「새歷史의 鼓動」이란 책이 출간되었다. 이책은 서정 「80년대의 도전」 제1장 「정치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제2장 「자유와 참여 개혁의 물결」 제3장 「민주적 지도력과 정치발전」 등으로 되어있다.

<문학사 364면 2,500원>

대학축제의 의미는 젊음과 낭만을 마음껏 발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학문화 창조를 위한 하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본다. 특히 이번 축제는 예년과는 다르게 총학생회의 주도로 「특별대제전」이란 명칭아래 이제까지 축제의 소비·향락적인 면을 지양, 보다 건설적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많은 기대를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축제가 전적으로 그다지 책임있는 느낌을 주지 못해 다소 섭섭했다. 물론 예산통절과 중간고사로 인

의 하나됨」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었을 것이다. 한때 축제의 전방적인 행사가 그 목적을 강조한 나머지 한 방향으로 치우쳐 폭넓고 다각적인 행사가 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축제는 대학의 낭만과 문화창조의 조화속에서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참다운 목적이 있으며, 축제는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어야 하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즐거워야 할 축제가 경직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축제의 의미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축제는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행사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게 되어 일률적인 내용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볼 때 축제를 준비한 학생들은 나름대로 「우리」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수 학생들의 참여부족으로 있어 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인상을 받았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한 방향으로만 행사의 내용이 치우쳐 축제가 참여하는 학우와 참여하지 않는 학우로 나누어질 경우, 하나가 되고자 한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분열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더욱 아쉬웠던 점은 축제기간 중 정산수업을 지시함으로써 행사를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제 축제마포로 밀려나는 결과를

참여부족으로 분열감조성하기도 총학주도의 소비향락적 축제지양 폭넓고 다양한 행사진행 아쉬워



심 찬 식 <이과대 물리학과>

혁명적 주석시대... 김용容 전 공화당총재가 79년 10·26 직후 집권한 것으로서 '핵' 김용容이 80년대를 설계한 한국의 정치비전을 제시한 「새歷史의 鼓動」이란 책이 출간되었다. 이책은 서정 「80년대의 도전」 제1장 「정치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제2장 「자유와 참여 개혁의 물결」 제3장 「민주적 지도력과 정치발전」 등으로 되어있다.

한 이 거리에서 개최된 문화행사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정부 비판적인 행사는 허용될 수 없으며 행사를 열기가 허락하는 이념성 없는 순수(?) 문화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프로... T.V, 잡지, 스크린에서 활약을 조정하는 현정권의 우민화정책의 기수로서 문화가 가장한 대학으로 옮겨진 역할은 이제 부정되어져야 한다. 대학로는 울림 파본과위의 소관으로 96·88을 대비해서 전국토를 유원지화하려는 정책중의 하나로 추진되어졌다. 우리의 도시경관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필요로 적당해야하며 울림 파본과위의 소관으로 96·88을 대비해서 전국토를 유원지화하려는 정책중의 하나로 추진되어졌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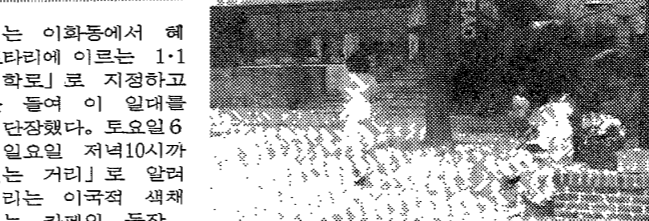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면에 숨겨진 의도

근처 공무원들이 총동원 되어 벼들을 나르고 철야 작업을 강행하여 5월 4일 개막전야제를 갖게된 「대학로-시민들의 휴양처가 부



▲광주민중의 처절한 의지를 총칼로 짓밟고 등장한 군부독재정권의 최대의 악점을 명명하여 국민의 뇌리에서 잊혀지게 하고픈 의도가 대학로속에 숨겨져 있음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대학로

서울시는 이화대에서 해 화동 「대학로」에 이르는 1.1km를 「대학로」로 지정하고 21억원을 들여 이 일대를 새롭게 단장했다. 토요일 6시부터 일요일 저녁 10시까지 「차없는 거리」로 알려진 이거리는 이국적 색채를 풍기는 카페의 등장, 푸른빛을 풍기는 수원의 등경, 붉은색 아스팔트 등 「대학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화려함을 과시하고 있다.

올림픽 치루기위한 걸치레에 불과 우민화 정책의 수단으로 한락조장

옛 서울대 문리대 시절을 그리, 거리의 악사와 화가를 집할 수 있는 대학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개마루 몇수가 지난지 금 의도를 의심케 한다.

실공사로 전전하리만치 그렇게 급한 것이었는가? 80년 5월, 광주민중의 처절한 의지를 총칼로 짓밟고 등장한 군부독재정권의 최대의 악점을 명명하여 국민의 뇌리에서 잊혀지게

있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여 쌓여갔다. 우리를 생활전반이 그러한 광범위한 연속적인 광범한 것이기에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품들을 피정열의 정열을 보는 가슴으로 절절히 찢어내고 있다.

감사하는 법주는 우리의 의 표현보다 더욱 절실한 절절과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주시는 분들이다. 이 법 정시회에 걸려진 작품들에서 느끼는 후회한 감정은 작품 양상이 서로의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은 덜 소화된 작품들은 각고와 분투의 자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정부 비판적 문화행사 허용 제한

한 이 거리에서 개최된 문화행사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정부 비판적인 행사는 허용될 수 없으며 행사를 열기가 허락하는 이념성 없는 순수(?) 문화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프로... T.V, 잡지, 스크린에서 활약을 조정하는 현정권의 우민화정책의 기수로서 문화가 가장한 대학으로 옮겨진 역할은 이제 부정되어져야 한다. 대학로는 울림 파본과위의 소관으로 96·88을 대비해서 전국토를 유원지화하려는 정책중의 하나로 추진되어졌다. 우리의 도시경관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필요로 적당해야하며 울림 파본과위의 소관으로 96·88을 대비해서 전국토를 유원지화하려는 정책중의 하나로 추진되어졌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으로 갖든 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철저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의 거리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젊은 지성들이 모여 가치를 토론하고, 인생을 논하며 각광을 앞에 두고 역사를, 민주를, 민족을 말하는 대학로가 되기 위해 선 행사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일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의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대학로에서 이뤄질 대학로는 대학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상징-금성 人間·技術·未來

GoldStar Technopia

인간과 기술의 만남

기술(Technology)을 통한 이상향(Utopia)의 건설. 첨단과학기술로 풍요로운 21세기를 이룩하려는 것이 금성의 기술이념입니다.

뉴미디어! 그 무한한 정보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연다.

앨런 토플러는 「제3의 물결」, 마셜 맥루한은 「지구촌」으로 부르는 高度情報社會— 곧 다가올 21세기의 高度情報社會는 컴퓨터·通信技術의 발달에 의해 지금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금성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뉴미디어분야는 고도정보화사회의 주역으로 우리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뉴미디어의 중심적인 역할은 역시 컴퓨터로서 금성은 이미 컴퓨터사업에 참여, 보고, 듣고, 판단하는 第五世代컴퓨터까지의 개발을 위해 컴퓨터 내부의 능력보다 인간의 五感 및 認識作用에 대응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보전송량과 속도에서 미래의 통신시스템으로 각광받는 光通信시스템, 일정지역내의 사무기기를 한 회선으로 연결해 정보를 共有할 수 있는 LAN, 원하는 정보를 언제나 얻을 수 있는 비디오텍스트, VAN, CATV 등 기술금성이 개발하는 뉴미디어는 우리를 보다 知的創造力이 요구되는 고도정보화 사회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러한 尖端科學技術에 의한 綜合情報通信網(ISDN)의 실현, 이것이 바로 기술금성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금성은 이를 위해 이미 「第五世代컴퓨터 開發委員會」, 「ISDN研究推進委員會」를 조직, 우리나라 컴퓨터·通信技術의 역사는 곧 技術金星의 역사라는 자부심속에서 더욱 면밀하고 유력한 고도정보화사회의 이룩하여 21세기의 테크노피아를 앞당길 것입니다.

김성반도체(주) 전무이사 **김성준** (공화당)

●금성사 ●금성전선 ●금성통신 ●금성전기 ●금성계전 ●금성정밀 ●금성반도체 ●금성알프스전자 ●금성하나빌 ●금성소프트웨어